

광주 동구 “미래의 추억을 충장축제에서 선물해요”

10월2일 제21회 충장축제 개막 뉴트로 감성 살려 추억에 반영 “새 문화 창출하는 축제로 거듭”

10월2일부터 6일까지 광주 동구 금남로와 충장로에서 펼쳐질 ‘제21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가 추억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장착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을 찾는다.

3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제21회 충장축제’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뉴트로’ 감성을 적극 수용해 축제의 버전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추억에 대한 감성을 과거에서 미래로 이끌어 낼 예정이다.

뉴트로 감성은 과거의 향수에다 현재에 대한 만족감을 더해 단순히 좋은 시절을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창출하고 있는 문화 현상이다.

올해로 충장축제의 메가폰을 두 번째 잡은 김태욱 감독은 “지난해는 말 그대로 시도였을 뿐 본격적인 변화는 올해부터”라며 “여전히 추억은 이 시대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 같은 느낌을 지울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옷을 만든다

는 마음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과 추억이 빛나는 축제, 즉 추억의 시제를 현재와 미래형으로 확장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축제는 추억에 대한 접근이 어느 때보다도 더 다각적이면서도 심도깊게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통시적 개념의 추억이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띠고 길거리 도심 축제로 자리매김하게 될 전망이다.

매일매일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축제로 10월2일 개막의 날, 10월3일 감성의 날, 10월4일 열정의 날, 10월5일 행진의 날, 10월6일 폐막의 날로 구성된다.

세계인이 함께하는 글로벌 축제로서 전일빌딩 245와 ACC(아시아문화전당) 등 동구 일원에서 펼쳐지는 프로그램으로 10월 1, 2일 아시아뮤직 서밋과 10월 3일부터 6일까지 광주 버스킹월드컵이 펼쳐

진다. 보고 듣고 맛보고 놀면서 추억하는 소소한 기쁨을 만드는 축제로서 로맨스 파이어, 복싱장 배틀, 오감으로 추억하는 추억의 테마거리, 바둑대회&알까기 대회, 인생 최고의 대로 등의 프로그램과 함께 모여 대동으로 하나되는 축제로 대동놀이 한마당, 추억 동창회, 추억의 밀가루놀이, 파이어아트 퍼레이드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광주 충장축제가 시민들의 각기 다른 추억을 하나로 엮는 매개체가 될 것”이라며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나누는 화합의 장으로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21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충장축제 홈페이지(recollection.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



달라진 충장로 1가 입구

광주 동구가 충장로 1가 입구 빈 상가에 무분별하게 부착됐던 포스터와 테이프를 제거하고 산뜻한 쇼핑 디자인으로 랩핑했다. 왼쪽 사진은 재정비 전 모습. 김양배 기자



광주 찾은 대만 학생들… “5·18 가치 배웠어요”

시교육청 ‘찾아가는 5·18 프로그램’ 대만 타이난시 고등학생 등 참여 사적지 방문·광주 청소년과 교류

“한국 민주주의의 시작점인 5·18민주화운동 현장 방문을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에 더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습니다.”

대만 타이난시 청소년들이 광주에서 5·18을 체험하고 돌아갔다.

광주시교육청은 대만 타이난시 고등학생 18명과 인솔교사 5명이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해 ‘찾아오는 5·18 세계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3일 밝혔다.

첫날 학생들은 광주 대표음식 ‘송정 떡갈비’를 체험하고 이어 금남로 K-컬처클로버센터에서 K-POP 댄스를 배우는 등 한국문화를 즐겼다.

지난달 29일에는 이정선 시교육감과 함께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5·18기록관에서 ‘5·18의 성격과 의미’를 주제로 한 특강을 들었다. 또 5·18 사적지인 전일빌딩245, 옛 전남도청 등을 둘러보며 광주의 5·18 현장을 체험했다.

30일에는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양림동 유진벨선교기념관, 충현원 등을 둘러봤다. 이후 전남여고를 방문, 2학년 학생들과 함께 학교급식으로 점심을 먹고 학교 수업에 참여하며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저녁에는 대만 고등학생 18명과 청소년 5·18홍보단 ‘푸른새’ 고등학생 단원

51명이 함께하는 민주·인권 교류 워크숍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대만 2·28사건과 광주 5·18에 대해 발표하며 서로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이야기했다.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한국의 전통 음식 한과(강정)를 만드는 체험이 진행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대만 학생은 “희생자들을 위해 국립묘지를 조성한 한국 정부가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했다”며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와 자유는 많은 선조들의 희생으로 얻어진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청소년들이 5·18의 가치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의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주비 기자

광주시교육청,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만든다

2027년 2월까지 정광고·조대부고 등 7개교 사업 추진… 매년 5~7억 지원

광주시교육청이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만들기에 나선다.

3일 시교육청은 교육부 주관으로 실시된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교육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지역 7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업은 지역 여건과 상황에 맞춘 사교육 경감 정책을 지원하고 우수 사교육 경감 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다.

대상 학교는 △정광고등학교 △광주인성고등학교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광주동신여자고등학교 △송덕고등학교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 △광주자

연과학교등학교 등이다. 이들 학교에는 오는 2027년 2월까지 매년 총 5억~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학생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무상 제공,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 증진 프로그램, 학생 동아리 운영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 지역 대학 연계 프로그램 등 각 학교 여건과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교육청은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7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컨설팅도 추진한다. 또 사업 운영 계획의 실효성을 검토해 학교별 특성과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지역의 상황에 맞는 사교육 경감 모델을 개발해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주비 기자

누구나 쉽게 바르는 황토 벽지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살아 숨쉬는 고어텍스 특허공법 천연황토 코팅제!!

▶ 용도

어린이집 · 유치원 · 한옥 내 · 외부 · 방바닥 · 전원주택 · 경로당 · 아파트 · 펜션 · 찜질방 · 카페 · 홈집
외벽 · 목재 · 양어장 · 물탱크 · 기타 인테리어를 요하는 곳
비가 오면 축축하거나 물이 새어 곰팡이 생기는 모든 곳
기존 황토미장된 곳이나 도배지를 뜯지 않고 위에 시공을 요하는 모든 곳
·비염으로 고생하는 어린이방이나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 친환경성

천연황토, 게르마늄, 솔잎, 편백나무, 약쑥, 참숯, 은행잎등 건강에 좋은재료를 엄선하여 고분말로 만들어 술향기나는 친환경 웰빙제품입니다.

▶ 색도조절제 화이트(600g) : 원하는 색상 조절가능



저가 황토 제품과 비교 절대 불가!!

▲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

시중에 검증 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 업체입니다.

전화 문의시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공구입시 시의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korea.biz